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 24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광주시민상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피켓 등을 들고 있다.

'세월호 재판' 단원고 학생·교사들 증언한다

광주지법, 3차 공판기일 주요 증인 채택...목포해경 123정 직원도 법정에서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긴박한 현장 상황을 증언한다.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목포해경 123정 해경들도 법정에서 증언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항후 법정에서 진술할 주요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 일정 등을 잠정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모두 70여명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고 이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데 70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침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다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오는 7월 28일~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화상증언실을 활용해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로 안산에 거주하고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경우 최근 단계 숙소 내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되는 해

프닝에도 세월호 침몰 당시 '배에 그대로 있어라'는 안내 방송을 떠올리며 친구를 남겨놓고 나왔다는 죄책감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리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도 이같은 점을 감안, 안산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향을 건의했다.

단원고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이 앞서 오는 7월 22~23일 법원에 나와 당시 급박했던 현장 상황을 진술한다. 함께 탑승했던 일반인 승객들의 진술도 이 때 이뤄진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받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직원 13명은 유동적이지만 오는 8월 12~13일 법정에서 설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 해질 19:51 | 다음날 03:39 | 다음날 17:54

출근길 안개 조심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8/28	보성	구름많음	17/27
목포	구름많음	18/26	순천	구름많음	19/27
여수	구름많음	19/24	영광	구름많음	17/27
나주	구름많음	17/29	진도	구름많음	17/26
완도	구름많음	18/27	전주	구름많음	18/30
구례	구름많음	17/30	군산	구름많음	18/28
강진	구름많음	18/28	남원	구름많음	17/29
해남	구름많음	18/27	축산도	구름많음	18/25
장성	구름많음	17/28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부	면바다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남서	0.5
서부	면바다	서~북서	0.5~1.5	북동~동	0.5~1.5

생활지수

식중독	63
운동	4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6:06	00:44	18:08	12:43
	07:43	01:43	20:19	13:41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7/1(화)	2(수)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19/27	20/29	21/29	21/29	22/30	22/30	22/30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유병언 흔적 찾는다며 택배회사 뒤지는 경찰

경찰이 급기야 세월호 실질적 소유주인 지목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적을 쫓겠다며 택배 사업장까지 뒤지기 시작했다.

택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라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자칫 구체적 정황도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게 하거나, 무분별한 택배 물품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인권 침해 주장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 남부서 등 5곳

구원과 물품 파악 나서

배송 주소지 요구 등 과잉 수사

사생활·인권침해 우려 제기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5개 경찰서는 지역 택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문 조사를 실시, 구원과 관련 농장이나 회사 등에서 배송을 의뢰한 물품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순천시 송지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남기고 간 다량의 미네랄 생수, 유기농 식품 등을 통해 유씨의 존재와 그의 행동 패턴을 확인한 바 있다.

유씨가 광주·전남에 머물고 있다면 그가 즐겨 쓰는 물건이 택배 회사를 통해 은신처로 배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택배 사업장과 배송 물건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동구 10곳 ▲서부 50곳 ▲남부 40곳 ▲북부 50곳 ▲광산 50곳 등 200개소 안팎의 택배 사업장이 대상에 올랐다.

주요 검색 대상은 구원과 소유 소포물·영농조합·제조공장 등이 의뢰한 생수, 스쿠알렌 제품의 대량 배송처다. 또 이들을 통한 생필품 및 유기농 식품 배송 여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감시 대상 물품의 배달 경로를 살피기 위해 사업장 내 CCTV 영상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대량물건 배송 주소지 제공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게 사업장측 설명이다. 일부 사업장은 소속 택배 기사 전원의 연락처까지 요청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유병언' 소재 파악을 위해 200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택배 사업장 내 택배 물품 확인에 나선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불특정 다수의 택배 서비스 이용객을 대량 물품 구매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과 관련 업체 이용객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에 올려 놓으면서 과잉 대처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대통령의 조속한 검거 강요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능한 수사·정보력에 대한 비판 등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많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병언씨가 특정 물품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택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최근 특이 동향을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평소와 다른 점을 파악해 문의하는 탐문 수준일 뿐 무분별한 수사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www.gimma.or.kr

"새로운 미래와의 만남"

제6회 광주국제금형·기계·자동화기기전

GIMMA 2014

6.25(수) ▶ 28(토) /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KDJ CENTER)

특별관

- ▶ 공작용품구매전
- 안전용품/공구
- 전기/조명
- 운송/창고/청소/위생
- 유희/실験기구

본 무료초청장은 입장권(W6,000/2인)을 대신합니다.

무료초청장

제6회 광주국제금형·기계·자동화기기전

GIMMA 2014

6.25(수) ▶ 28(토) / 4일간 | 김대중컨벤션센터 (KDJ CENTER)

▶ 금형 및 소재분야

금형가공/성형기기
금형/부품/소재
CAD/CAM 및 소프트웨어
계측/검사기기

▶ 기계분야

금속공작/가공기계
산입기계
주/단조/열처리기계
용접기/연마기

▶ 공작자동화기기

생산자동화
유·공압 구성요소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및 솔루션

전시개요 General Information

행사명: 국문: 제6회 광주국제금형 및 기계산업전
영문: Gwangju International Mold & Machinery Industry Fair 2014
명칭: GIMMA 2014
기간: 2014. 6. 25(수) ~ 6. 28(토) / 4일간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KDJ CENTER)
규모: 9,072㎡ / 200개사 400부스

주최: 광주광역시 |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주관: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대한기계공업진흥회 | 대한금속공업진흥회
협찬: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대한기계공업진흥회 | 대한금속공업진흥회

부대행사 Events

일시	시간	장소	제목	주최
6월 25일	오후 2시 - 오후 5시	KDJ CENTER 2층 206호	중견·중소기업 대상 SAP 전략 및 사례	이브프로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KDJ CENTER 2층 214호	- 독일 선진 공학제작 기술 소개 - 독일의 공학기술도 및 벤치마킹 - 공표지인 발명품 공구제작 - 공구제작사 자조적 best practice	Fraunhofer
6월 26일	오후 2시 - 오후 3시	KDJ CENTER 2층 207호	제이 박사에 따른 효율적인 문도제어	오티노스

GIMMA 2014 사무국 | T. 062-611-3400 E. hipark@kimikorea.com

16일만에 세월호 실종자 1명 추가 수습

대책본부, 단원고 여학생 확인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수습됐다. 지난 8일 단원고 남학생 시신 수습 이후 16일만이다.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새벽 1시3분께 세월호 4층 중앙 선원 통로 수색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시신 1구를 수습했다.

대책본부와 합동구조팀은 여성 옷차림 등으로 미뤄 단원고 여학생인 것으로 추정,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거쳐 단원고 2학년 윤모(17)

양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세월호 희생자는 총 293명으로, 침몰 사고로 실종된 1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여고생 시신 1구 수습

실종 11명 사망 293명

※ 세월호 참사 69일째

24일 오후 8시 현재